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마태복음 24장 32절-51절, 25장 1절-13절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빈이고, 저는 윌링던 교회의 담임목사 중 한 명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 기쁩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51절,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성경을 계속 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선생님이 교실을 잠시 비우셨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어떤 이유로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게 되었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은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은 채 돌아오겠다고만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자리를 비우시기 전 우리에게 교실을 떠나지 말고 장난치지 말며, 그 시간 동안 교과서 7장을 끝내라고 엄격히 지시하셨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몇몇 학생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몇 학생들이 벽에 걸려 있는 시계의 시간을 바꾸기로 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시간을 앞당겨서 점심시간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오도록 만들었습니다.

제가 책을 읽었던 학생이었는지, 시계를 조작한 학생이었는지는 여러분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선생님이 자리를 비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우리는 현재 예수님의 재림을 큰 기대 속에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 다룰 세 가지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징조를 주시하십시오.**
2.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3. **신실한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지난 주일, 레이 목사님은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31절, 즉 '멸망의 가증한 것'에 대해 설교하셨습니다. 레이 목사님은 이 본문을 통해 제자들이 성전 파괴(70년)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이 지상에서 거하실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성전은 제사장들이 백성을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던 곳이었고, 유대인의 종교적, 사회적, 정치적 중심지였습니다. 성전의 파괴로 이어지는 징조들이 있었지만 그다음 사건으로 이어지는 징조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1. 징조를 주시하십시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며 다음 단어를 강조해 주세요.

- 무화과나무
- 알다
- 보다
- 알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중요한 점은 3절에서 예수님이 이 교훈을 제자들에게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가오는 징조에 대해 신경 쓰지 않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릅니다. 32절부터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화과나무의 비유를 통해, 적당한 때가 되면 잎이 돋고, 그 잎을 보면 열매를 맺는 계절이 왔음을 알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은, 성전의 파괴와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우리가 볼 수 있는 징조가 있을 것이며, 그 징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징조를 보고,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무엇을 해야 할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제가 사랑하는 분 중 일부는 제겐 무모해 보이는 분도 있습니다. 차의 가스등이 켜질 때처럼 어떤 사람들은 “그건 그냥 경고등일 뿐이야, 우리는 아직 50km 더 운전할 수 있어, 괜찮아!”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토론토로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정말로 그런 징조가 나타나면 대부분은 무엇을 해야 할지 압니다.

제가 이 예를 든 이유는 34절에서 "이 세대"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 세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대부분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세대를 언급하고 있다는데 동의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로 돌아가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을 볼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들의 세대 또는 그들 세대의 생애 동안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나타날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징조를 보고 알기만 하는데 그치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야 한다고도 말씀하십니다.

보다. 알다. 도망가라. 레이 목사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징조를 보고 그 징조를 알면 우리는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에는 징조가 있었지만, 그 징조를 이해한 사람은 적었고, 무엇을 해야 할지 아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재림은 많은 주목을 받지 않은 채 은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두 번째 재림은 그를 아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모든 사람에게 알려질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의 재림 징조들을 주시하세요. 그 징조는 우리 주변에 있지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매일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날씨에 대해 아는 대로 추측을 합니다. 제 눈으로 본 것으로 옷을 입는 법과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을 대비하는 법을 압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징조에 집중하거나 징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징조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비하는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나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하나요? 두려움과 공포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누구에게 의지해야 할지 모를 때 생겨납니다. 마태 복음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살펴보세요.

그들은 23장 초반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일곱 가지 화에 대해 말씀하신 것을 들었고, 이어서 그들의 예배 장소이자 가치인 성전이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걱정하며 물었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대답을 희망과 위로로 마무리하십니다. 그 위로와 희망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선생님이 잠시 교실을 비우셨을 때, 그가 돌아온다는 사실이 희망을 주지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규칙을 어기고 있었다면, 그것이 두려움을 주겠지만, 규칙을 따르고 있었다면, 안도감을 주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일이 당신과 관련이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선생님이 좋은 성품과 돌아오실 것을 알고 있다면, 당신의 현재 상황에 차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만약 그것이 여러분과 관련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이 선생님의 좋은 성품과 돌아오실 것을 알고 있다면, 여러분의 현재 상황에 차이를 만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것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두 번째 요점으로 가보겠습니다.

2.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리십시오

마태복음 24장 전반부에서 예수님은 매우 높은 관점에서 말씀하셨습니다, 36절부터 예수님은 제자의 관점에서 요점을 제시하기 시작하십니다. 24장 후반부와 25장 전체를 이 한 관점에서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자신의 관점보다는 인간의 관점에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세부 사항을 알고 싶어 하지만, 기다리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것은, 저희 집에 전자레인지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오븐에서 음식을 데우려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45분 후에 배고플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전자레인지가 있어서 1분도 빠르다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는 가장 빠른 주행차선을 찾고, 가장 짧은 계산대 줄을 찾으며,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기다림에 관한 것입니다.

36절에서 44절까지의 본문을 살펴보면 주목할 만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36절의 첫 단어와 함께 우리는 약간 다른 주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했듯이,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것입니다.

이전에 주로 성전에 대한 내용이었지만,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날/때 (36절)

인자의 임함 (37절, 39절)

주님이 임하는 날 (42절)

인자가 오리라 (44절)

때 (44절)

예수님은 "그날"을 언급하며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십니다. 이날은 "심판의 날", "재림의 날", 또는 "그 때가 가까웠다"라는 의미입니다.

아들도 모르고"라고 하신 부분을 잠시 언급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날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은 이날에 대한 지식을 아버지께 맡기고, 아버지의 시간에 대해 신뢰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모르고"(36절)와 "생각하지 않은 때에"(44절)라는 말씀이 흥미로운데, 예수님 시대 이후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이 돌아오는 날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언제 돌아올지 예측한 몇몇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기원후 500 년
- 1월 1일, 1000
- 1415 (타보라이트)
- 1284 (교황 인노켄티우스 3세)
- 1835년 2월 14일 (조셉 스미스)
- 1843-1844 (윌리엄 밀러)
- 1910년에서 1914년으로 변경 (찰스 러셀-여호와의 증인)
- 1993 (하나님의 자녀들)

- 1988 : 휴거가 1988년에 일어나는 88가지 이유
- 1992년 10월 28일 호주 시드니.
- 1998년 UFO를 통해.
- Y2K - 2000

우리가 그 날을 알고 싶어 하는 이유는 이해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와 시간을 모르는 것이 우리에게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제가 학생이고, 선생님이 교실을 나갔다 오겠다고 말씀하셨다면, "15분 후에 돌아올 거야"라고 하셨다면, 저는 14분 59초 동안 제 욕망을 충족시킬 것 같습니다. 또는 지금은 목사로서, 그 15분 동안 최선을 다해 성경을 읽고, 선생님이 돌아오시면 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을 보시기를 기도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는 일이 우리를 보여줍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의 육체를 따라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 것입니다. 또 다른 편에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하고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방식으로 행동하며, 선생님이 돌아와서 나쁜 학생들이 현장에서 잡히는 모습을 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우리가 준비된 상태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36절에서 39절로 돌아가면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노아의 때 (37)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38)

깨닫지 못하였으니 (39)

노아의 이야기는 창세기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방주를 지으라고 부름을 받은 때부터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의 기간은 50년에서 120년 사이입니다. 이는 많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지만, 기다리는 동안 노아는 순종했습니다. 방주를 짓는 일에 순종했고, 사람들에게 회개와 다가올 홍수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들이 해야 할 대로)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지만, 그들은 노아의 경고를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Until"이라는 용어가 갑작스럽다는 의미로 이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홍수에 대비하지 않고 그들의 삶을 살고 있었고, 그러다 갑자기 홍수가 왔습니다.

부모님이 1975년에 고국을 떠났을 때, 전쟁은 1968년부터 계속되었습니다. 그 7년 동안, 그들은 가만히 앉아 있지 않고 준비와 희망 속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고국이 결국 무너졌고, 가방은 도망가기 훨씬 전에 싸두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교의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아이들이 잔인한 적을 만날 가능성이 크다면, 적어도 그들은 용감한 기사와 영웅적인 용기에 대해 들어보게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의 운명을 밝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어둡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구를 기다리느냐가 우리의 삶을 정의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중요하지 않다면, 우리는 그냥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또는 예수님의 재림이 심판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을 일으킨다면, 우리는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선하고, 사랑이 많고, 정의롭고,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면, 우리는 기대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24:42-44로 돌아가면, 다음과 같은 용어들이 보입니다:

-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42)
-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44)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하고, 이전 구절에서 언급된 것 때문에 준비되어야 합니다. 40절과 41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이미지입니다. 밭에서 일하는 두 남자의 이미지와 맷돌을 사용하여 맷돌을 갈아내는 두 여자의 이미지입니다.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지는데, 이를 휴거라고도 합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려가서 함께 있게 하실 때의 순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데려가다"와 "남겨지다"라는 용어는 누구나 어디서 데려가거나 어디에 남겨질지에 대한 명확한 표시가 없습니다. 대부분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들이 하늘로 데려가져서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노아의 이야기와 이 본문을 결합하면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의 이야기에서 의로운 사람은 남고, 불의한 사람은 데려가집니다. 저는 이 본문의 핵심이 누구를 데려가고 누구를 남겨두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준비된 상태로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준비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서 "날"이나 "때"라는 단어가 다섯 번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는 특정한 시간, 한순간이 있음을 상기시켜 주며, 그 순간은 천천히 이루어지지 않고, 개인적이고, 육체적이며, 가시적이고, 보편적이며, 갑작스럽고 극적인 순간으로,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게 돌아오셔서, 모두가 볼 수 있도록 그분의 제자들을 데려가실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돌아오기 전에,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세 번째 요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 신실한 믿음으로 일하십시오

45절부터 보면 예수님은 질문으로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어떤 종이니까?"

첫 번째 종에 대해 우리는 두 가지 주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며, 주인이 집을 떠나 있는 동안 맡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종은 "불충하거나 지혜롭지 못한 것이 아니라 '악한' 종"으로 소개됩니다(48절).

왜 이 악한 종은 악하다고 여겨진걸까요?

"악한"이라는 용어는 악하고 해롭고, 피해를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종의 악함의 깊이를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스스로의 생각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그는 "주인이 금방 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 스스로 주인이 되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악한 종은 자신의 자유를 자신을 위해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베드로후서 3장 1절~7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 때에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악한 자들에게는 심판과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46절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에 대해 두 가지 세부 사항을 제공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된"과 "하는"이라는 단어를 봅니다.

"복된"이라는 단어는 또한 행복하다고 이해될 수 있습니다. 왜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은 행복할까요?

두 종은 같은 집에 있습니다. 두 종 모두 같은 주인을 섬기고 있지만, 한 종은 주인의 뜻을 "하고" 다른 종은 자신의 뜻을 "합니다". 한 사람은 주인이 돌아오지 않을 것처럼 살고, 다른 사람은 주인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삽니다.

예수님은 이 주제를 마태복음 25장 1-13절에서 시작되는 열 처녀의 비유를 통해 계속 말씀하십니다. 열 처녀 또는 열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섯은 준비가 되어 있고, 다른 다섯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두 초대받았고 모두 신랑을 알고 있습니다(마태복음 25:11). 결국 모두 잠이 들고, 큰 소

리로 깨워집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이 순간 예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즉 그를 따르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본문과 마태복음 25장의 모든 내용은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과 스스로의 길을 따르는 자가 분리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게 되고, 다른 무리는 예수님이 없는 곳으로 가게 되며 그곳에서 울고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 부르고, 주일 예배에 참석하며, “옳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지만, 그들은 자신의 주인이 되어 자기 길을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지난주 레이 목사님은 우리가 반복할 필요가 없는 몇 가지 일을 언급하셨지만, 저는 그중 하나를 짚고 싶습니다. 핵심 구절은 마태복음 24:35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예수님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실하고 강력한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가 모두 알고 희망하는 것이며, 지상은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상은 하나님의 말씀만큼 확실하고 강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어디에나 계시고, 주권자이시며, 진실하시고, 신실하시기 때문에 강력하고 확실합니다.

성전의 파괴부터 예수님의 재림까지 우리가 믿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은 그 말씀의 성취를 영원토록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만약 제가 교실에 있는 학생이고, 선생님이 잠시 자리를 비우고 돌아오겠다고 하셨을 때, 선생님이 떠나자마자 일부 학생들은 제멋대로 하고, 많은 학생들이 옳은 일을 하는 척할 것입니다. 저는 신실하고 지혜로운 학생들이 나머지 학생들에게 선생님이 얼마나 훌륭하고, 놀랍고, 사랑이 넘치는 분인지 이야기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들은 어떤 일을 할까요?

우리는 모두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어 죄와 사망을 이기셨으며, 그가 다시 오신다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만 전하는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도 전하는 복음입니다.

월링턴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억합시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 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묵상 질문:

1. 예수님은 아무도 그분의 재림의 날이나 시간을 알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진리는 당신의 일상 생활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2. 내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오늘 당신이 변화해야 것은 무엇입니까?
3.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습니까?

유다서 24절~25절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